

역사 다시 읽기: *The [First] Book of Urizen*

허윤덕*

I

『유리즌의 서』(*The Book of Urizen*)에 나타난 사상과 형식은 18세기말의 성서 해석학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탠바움(Tannebaum)은 『유리즌의 서』에서 블레이크가 특히 아이혼(Eichhorn)의 성서해석학에 나타난 성서에 대한 해석과 문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창세기의 앞의 3장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한다.¹⁾ 최근에 들어서서 맥간(Jerome McGann)은 『유리즌의 서』의 “무질서한 텍스트”는 블레이크가 제드(Geddes)의 작품을 읽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²⁾ 제드는 그의 작품의 서문에서 창세기가 그 내러티브에 있어서 엘로힘적(Elohist) 요소와 야훼적(Jahwist)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이혼의 이론을 요약하고는 성서의 각각의 텍스트들은 다양한 기원과 시대를 지니는 텍스트상의 단편들은 아무렇게나 묶어 놓은 합성본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³⁾ 이처럼 『유리즌의 서』에서 블레이크는 성경의 여러 가지 형식을 따라 텍스트를 도안하면서 모세(Moses)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논박하기 위해 『유리즌의 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 인간, 천지창조와 원죄에 대한 성서와 밀튼(Milton)식의 해석을 수정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유리즌의 서』는 블레이크의 “지옥의 성서(Bible of Hell)”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을 묘사하기 위해 창세기의 기본 틀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창조주와 창조개념을 패러디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른바 ‘지옥의

* 영어교육과 전임강사

1) Leslie Tannebaum, “Blake Art of Crypsis: *The Book of Urizen* and Genesis”, *Blake Studies* 5:2(1972), p.143.

2) Jerome McGann, “The Idea of an Indeterminate Text: Blake Bible of Hell and Dr. Alexander Geddes.” *Studies in Romanticism* 25 (1986), p.323.

3) *Ibid.*, p.311.

4) 비평가들이 이 시를 “counter-myth of Genesis”, “mock Genesis in a parodic Bible of Hell”, “literary anti-utopia”, “history of decreation or uncreatio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목부터 창세기의 부제인 *The First Book of Moses*

성서'로서의 『유리존의 서』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천국의 성서(Bible of Heaven)'를 '악마적(infernal or diabolical)'인 독서법으로 읽고 해독하여 다시 쓴 블레이크의 '성서'로서, 이러한 독서과정은 성서의 내용과 상징들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변용하여 재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블레이크의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연구한 브렌트(Stephen C. Behrendt)는 이 같은 독서과정의 기능을 일종의 의미론적 의복의 벗겨내기라고 요약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is reading process must be a skeptical one that rejects divine privileging and the concession of absolute authority to the written text as *word of God*. It must be a subversive activity whose processes are corrosive to the authority both of text and of the act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at text. It must be an activity strips away apparent surfaces to reveal imbedded Truth....The reading activity Blake advocates is one of dismantling, of uncovering, of removing the semantic and intellectual garments and displaying the pristine, naked eternal truth that is everywhere the primary objective of his art.⁵⁾

그래서 블레이크는 이러한 수정적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 시각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서 등의 비전에 대한 인유를 증복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식은 기존의 관점들을 보다 넓은 차원의 문맥 속에다 위치시키는 방법 - 그 방법으로 그 관점들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 으로, 성서나 『실락원』(Paradise Lost)에서 그 전제를 찾을 수 있다. 히브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점을 성서나 『실락원』보다 앞당겨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기(Exodus)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영광스러운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되는 그 순간부터 부정을 저질렀다고 선언한다. 이와 유사하게 밀튼은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앞당기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의 길을 정당화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실락원』에서 보다 넓은 차원의 연대기적 구조 속에다 성경을 위치시킴으로써 하늘에서의 전투와 이

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성서처럼 장(chapter)과 절(verse)로 나누어져 있고, 그 도판도 성서들처럼 한 면을 세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5) Stephen C. Behrendt, *Reading William Blake*(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2), p.127.

전의 사건들을 묘사한다. 이처럼 넓어진 문맥 속에다 성서의 비전들을 위치시킴으로써 밀턴은 신의 전지전능, 천지창조, 그리고 민주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왕국으로서의 궁극적 영역의 형식과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믿음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수정한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실락원』에 제시된 성스러운 역사의 다양한 순간들을 환기시키고 있지만, 밀턴과 성서의 연대기와 사건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극적 구조에다가 이 순간들을 위치시킨다. 예를 들어 영존자들(Eternals)의 육신으로부터의 유리즌(Urizen)의 분리는 수축에 의한 신의 창조, 하늘에서의 사탄의 내밀한 음모, 세계에 대한 신의 형성, 지옥의 사탄, 하늘에서 전쟁 중인 메시아 등을 환기시킨다. 이렇게 다양한 순간들을 유리즌의 내밀한 분리의 순간에다 겹쳐 놓음으로써 블레이크는 유리즌이 사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밀턴에서의 이러한 순간들이 원래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려 하면서 그것들의 원형을 유리즌의 분리를 통해 발견하려 한다.

성서와 밀턴에 대한 중복적 인유라는 또 다른 방법은 “자유의 노래(A Song of Liberty)”에서 이용되었던 반어적 기법으로서, 아마도 블레이크의 특유한 수정의 방법일 것이다. 블레이크는 원래의 문맥에서 단어, 이미지, 모티프, 사건들, 인물 그리고 배경 등을 옮겨 다다 원래의 문맥과는 종종 의미가 정반대인 새로운 문맥 속에다가 이 요소들을 자유롭게 배치한다. 이렇게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블레이크는 요소 요소마다 새로이 조명함으로써 기존체계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의미를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소 하나 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룸(Bloom)이 블레이크의 비전이 밀턴으로부터 빌려 온 영광에 불과하다고 실망한 것은 블레이크의 작품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이다.⁶⁾ 블레이크는 밀턴에게서 영광을 빌려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사용하여 잘못된 문맥으로부터 비전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세계의 창조에 대한 그의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블레이크는 성서와 밀턴의 견해가 자비로운 신의 창조적 충동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표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성직자의 출현과 영원으로부터의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천지창조에 대한 전통적 비전은 우선 신학적으로 본다면 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심리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능력의 분열을, 우주론적으로 보면 혼돈과 지옥의

6) Harold Bloom,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특히 1장을 참조.

산출을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세계에 대한 상상적 인식의 상실을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리존의 서』를 분석함으로써 블레이크가 이 작품을 통하여 성서와 밀튼의 『실락원』를 예언적 차원에서 변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그것을 통하여 블레이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II

하나의 서사시로서 『유리존의 서』 역시 ‘권두시(Preludium)’에서 서사시의 관례인 작품의 주제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f the primeval priest's assumed power,
 When Eternals spurned back his religion,
 And gave him a place in the north,
 Obscure, shadowy, void, solitary. (2:1~4)
 Eternals, I hear your call gladly.
 Dictate swift-winged words, and fear not
 To unfold your dark visions of torment. (2:5~7)

미첼(Mitchell)이 지적하고 있듯이 두번째 행에서 “when”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유리존의 반역과 영존자들의 거부를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하며, 유리존의 출현은 영존자들의 행위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⁷⁾ 본 시에 나타난 행위는 그 오류가 이 두 존재에 속해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존자들의 육신의 분열은 영원을 지배하기 위한 유리존의 시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유리존을 억압하려는 영존자들의 시도이기도 하다. 원인과 결과의 이와 같은 모호성은 의도적인 것이어서 두개의 서로 다른 관점, 즉 유리존과 영존자들의 관점에서 본 영원(Eternity) 속에서의 분리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권두시’의 두번째 연에서 블레이크는 영원에서의 타락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형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입증하고 있다. 이슨(Eassons)이 지적하고 있듯이 “날개 달린 재빠른 말들”은 지옥에서 비행하기 위해 사탄이 착용했던 “Swift

7) W. J. T. Mitchell, *Blake Composite Art: A Study of the Illuminated Poet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8), pp.128~129.

wings”(*Paradise Lost* Ⅰ :631)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은 영존자들의 말이 지옥의 고통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들의 말들이 로고스(Word)가 아니라 타락하고 분열된 말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더군다나 예언자는 “fears not”란 말로 영존자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지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속자(redeemer)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영존자들의 말을 “swift winged”로 묘사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블레이크는 그들의 말의 위상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의 작업이 받은 말들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달린 재빠른 말들”를 로고스(Word) 또는 그 자체가 “상상적 극적 형식(Visionary forms dramatic)”속에 명시되어 있는 역동적 형식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글레크너(Gleckner)는 영원에서의 의사소통의 형식을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Jerusalem)의 구절⁸⁾을 인용하면서 영원에서의 말(Word 또는 Logos)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공유, 사랑의 행위, 함께하기”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⁹⁾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영원에서 살아 있는 형상이므로 영원의 분열은 곧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T]he fall of Word into words, the degeneration of ‘Visionary forms dramatic’ into language. . . . a time-bound, space-bound syntax that passively mirrors the shattered mind and the excruciatingly finite limits of fallen sense of perception.¹⁰⁾

유리즌은 “나누어진 말들”(4:4)로서 그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로고스(Word)’를 ‘말들(words)’로 바꾸어 버린다. 타락한 언어에 의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블레이크는 획일적인 담화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그가 “상상의 극적 형식(Visionary forms dramatic)”(*Jerusalem* 98:28)이라고 한 상상적 극의 형식을 사용하여 타락한 언어의 “바로 그 순간적이고 공간적 한계”를 없애고 영원에서의 의사소통의 형식인 살아 있는 로고스(Word)를 재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

8) Cf. When in Eternity man converses with man they enter / Into each other bosom (which are universe of delight) / In mutual interchange & first their emanations meet, (*Jerusalem* 88:3~5).

9) Robert F. Gleckner, “Most Holy Forms of Thought: Some Observations on Blake and Language”, *English Literary History* 41(1974), p.505.

10) *Ibid.*, p.557.

다.¹¹⁾

‘권두시’에 이어서 『유리즌의 서』는 영원 속의 한 불사자(the Immortal)가 내면의 세계로 분리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유리즌의 세계창조는 영존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만, 그는 영원을 분할하여 그 한 부분을 전체 세계라고 명명하고 “사칭한 권력”과 “경멸받는 종교”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한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권두시’에서 『실락원』의 사탄처럼 제시되던 유리즌은 창조신 엘로힘(Elohim)으로 투영되며, 막 창조를 시작한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Lo, a shadow of horror is risen
 In Eternity. Unknown, unprolific,
 Self-closed, all-repelling. What demon
 Hath formed this abominable void,
 This soul-shuddering vacuum? Some said,
 ‘It is Urizen’. But unknown, abstracted,
 Brooding secret, the dark power hid. (3:1~7)
 Times on times he divided and measured
 Space by space in his ninefold darkness,
 Unseen, unknown. Changes appeared
 In his desolate mountains, rifted furious
 By the black winds of perturbation.

영존자들의 시선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화자는 유리즌의 등장과 현존하는 우주의 창조를 바로 영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공허의 창조로 그려낸다. 주목할 것은 유리즌의 등장이 타락의 근원과 겹쳐져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텐바움의 지적대로 창세기의 두 창조, 즉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와 인류의 원죄로 인한 타락한 세계의 창조가 겹쳐 있다는 것이다.¹²⁾ 영원이라는 배경,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포의 출현, 비밀과 소외 그리고 “악마”와 “어두운 힘”이 모두가 첫 번째 음모를 꾸미는 밀튼의 사탄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유리즌은 영존자들의 역동적 육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세계를 형성한다. 더군다나 엘로힘처럼 유리즌은 “시간에 시간을 거듭하면서 아홉 겹의 어둠 속에 있는 공간과 공간을 나누고

11) Ibid., p.559.

12) Leslie Tannebaum, *Biblical Tradition in Blake Early Prophecies*(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82), pp.202~206.

축정함으로써”, “안의 깊숙한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유리즌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영원을 고정시키려 한다. 그의 내면세계 속에서 영존자들이 그들의 감각적 인식을 축소하고 확장함으로써 끊임없이 변용하는 미세한 개별적 존재들은 이제 추상화되고 유리즌과의 오랜 투쟁 끝에 추상 속에 갇혀 버린다.

For he strove in battles dire,
In unseen conflictions with shapes,
Bred from his forsaken wilderness,
Of beast, bird, fish, serpent and element,
Combustion, blast, vapour and cloud. (3:13~17)

유리즌의 창조는 여호와와 창조와는 달리 신의 권능으로 수월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전쟁”과 “엄청난 노동”으로 수행된다. 유리즌이 이처럼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것은 영존자들이 관점으로 보기에는 “돌처럼 굳은 끔찍한 혼돈”을 형성하는 것이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전통적 관점에 반대되는 혼돈은 세계의 최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유리즌이 역동적 삶의 방식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세계로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탄, 성령 그리고 신의 행위를 유리즌의 행위와 겹쳐 놓음으로써 블레이크는 밀튼과 창세기의 성령과 신에 의한 창조의 비전이 사탄의 반역과 같이 영원 속에서의 타락을 나타낸다고 함축적으로 주장한다. 블레이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밀튼과 창세기에 제시된 혼돈의 질서는 영원의 무질서와 혼돈의 산출을 나타낸다. 그리고 원죄 이전의 세계의 형성은 영원 속에 존재하는 삶의 형식이 경직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자비로운 신과 성령이 새로운 생명에 존재를 부여하는 행위는 영원 속에 존재하는 삶의 원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를 의미한다. 성서와 밀튼에 나타난 비전은 정확한 것이지만,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블레이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즌이 분리되기 전 영원의 세계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삶이 끊임없이 요동쳤던 세계였음을 알 수 있다.

Earth was not, nor globes of attraction,
The will of the Immortal expanded
Or contracted his all-flexible senses,
Death was not, but eternal life sprung. (3:36~39)

분열과 타락이 존재하기 전에 불사자의 “의지” 또는 영존자들의 합일된 정체성은 “그의 모든 유연한” 감각적 인식을 통제한다. 정신과 후에 물질적 세계로 인식되는 존재는 창조적 정신이 온 세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넓이의 영역을 지닌다. 그러나 유리즌에게 이 끊임없는 활력을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은 사중생 (life-in-death)의 방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From the depths of dark solitude; from
The eternal abode in my holiness,
Hidden, set apart in my stern counsels
Reserved for the days of futurity,
I have sought for a joy without pain,
For a solid without fluctuation.
Why will you die, O Eternals?
Why live in unquenchable burnings? (4:10~13)

유리즌은 자기의식의 어둠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성하다고 이름 붙인 이성의 한계 내에서 다른 이의 충고는 무시한 채 미래에 대하여 고통이 없는 기쁨을, 변화가 없는 견고함을 추구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한과 영원의 불안 속에 있는 영존자들을 힐난한다. 이는 블레이크가 예언시의 다중 관점의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대목이며, 자신의 신성함과 미래에 대한 계획성을 강조하고 있는 유리즌의 모습은 세계의 다른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체계만이 옳다는 독선의 오류를 노출하고 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은 시인의 반어법에 의해 “성취의 오만”¹³⁾으로 가득 찬 유리즌의 자기기만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First, I fought with the fire, consumed
Inwards, into a deep world within-
A void immense, wild, dark and deep,
Where nothing was, nature’s wide womb.
And self-balanced stretched o’er the void
I alone, even I, the winds merciless
Bound. But condensing, in torrents
They fall and fall; strong I repelled

13) E. D. Hirsh, Jr. *Innocence and Experience: An Introduction to Blak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p.76.

The vast waves and arose on the waters,
A wide world of solid obstruction. (4:14~23)

신화적 비유로 보아야 할 불과 물, 바람들의 변화무쌍함을 물리치고 유리즌은 자신의 견고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듯하지만, 그 세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또 다른 견고한 체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지혜의 비밀”(4:25)이라 얘기하며 “황동의 책(The Book of brass)”에 기록한 “영혼의 일곱 가지 대죄(Seven deadly sins of the soul)”(4:30)이다. 여기서 블레이크는 십계명이 인간의 복리를 위해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율법이라는 전통적 해석방식을 전복하려한다. 유리즌의 추상적인 정신에 일곱 가지 대죄로 보이는 것은 영존자들의 자연스런 넘쳐흐름이다. 이 넘쳐흐름은 유리즌이 제정한 범주에 의해서만 죄로 생각될 뿐이다. 플라우먼(Dorothy Plowman)은 “실제로 죄(억압된 구속의 분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은 유리즌의 율법에 의해 강요된 바로 그 속박이다”라고 지적한다.¹⁴⁾ 이처럼 성서에서의 입법자인 신의 비전은 진정한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창시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블레이크는 주장한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처럼 블레이크는 종교의 도덕적 이원론이 그릇되게 에너지를 악과 죄로 비난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억압은 에너지를 도덕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질서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분노의 세력으로 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비판은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립적 기준에 의해 삶을 지배하여 대립물의 역동성을 정적인 계층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를 견고한 방어물로 고정시킨 유리즌은 인간의 의식세계도 종교의 그물로 구획을 짓는다.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가 함께 제약되었을 때, 그의 우주는 결국 단일한 체계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Law of peace, of love, of unity,
Of pity, compassion, forgiveness,
Let each choose one habitation,
His ancient infinite mansion,
One command, one joy, one desire,
One curse, one weight, one measure,
One King, one God, one Law.’ (4:34~40)

14) Mitchell, *Blake Composite Art*, p.120.

이처럼 유리즌이 무한한 원래 우주로부터 한정된 단일한 체계로서의 새 우주를 창조하자, 영원 자체도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영원의 분열로부터 쏟아진 불길들은 유리즌과 그 군대들을 『실락원』(Paradise Lost)에서의 악마들처럼 사면으로 둘러싼다. 그 불길은 밀튼의 모순어법대로 타오르나 빛이 없고, “영원세계의 분노의 불길 속에 사위는 암흑일”(5:17-8) 뿐이다. 자신의 창조가 야기한 이런 혼란은 유리즌으로 하여금 더욱 굳어진 체계 속에 숨어들게 하고, 그 결과 우주는 영원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성서와 『실락원』에 나오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확일적인 신의 정의는 『유리즌의 서』에서는 그릇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은 정의를 강요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자에게도 파멸적 결과를 초래한다. 유리즌이 그의 율법으로 영존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자 영존자들은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유리즌을 떼어내면서 분노로 그의 오류에 반응한다. 유리즌의 분열을 발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육신을 확장하는 대신에 분노에 몰린 영존자들은 “영원의 분노의 불길”(5:8)로 유리즌을 공격하며, 영원(Eternity)의 북쪽에다 그를 가두어 버린다. 이러한 악화된 판단은 유리즌의 끔찍한 쇠퇴를 가져오게 하여 영존자들의 육신의 분열을 더욱 굳어지게 만든다. 이성의 건전한 조정이 없는 영존자들의 반응은 주로 감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후에 공포 속에서 또 다른 쇠퇴한 영존자인 로스를 추방함으로써 똑 같은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Ⅲ

유리즌의 분리의 행위가 창조의 유일한 실례는 아니다. 유리즌, 로스 그리고 영존자들 모두가 손상을 보충할 능력이 부족하여 타락한 세계를 형성하며 세계, 인간, 과학과 종교를 산출하게 된다. 블레이크에게 천지창조는 머나먼 과거에 일어났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삶에 부정적 질서를 강요하는 오류를 저지를 때마다 발생하는 정신적 사건이다. 창조의 장면은 등장인물들이 유리즌의 원형적 오류 - 반작용을 금지하거나 율법을 세계에 강요하거나 또는 세계에 함정을 던진다는가 하는 오류 - 를 반복하며 똑같은 오류를 저지를 때 『유리즌의 서』내내 발생하게 된다. “영원의 예언자(the Eternal Prophet)”(13:35)인 로스도 유리즌의 타락으로서의 창조와 더불어 그 과정에 합류하게 된다.

블레이크의 창조 신화에는 두 단계의 창조와 타락이 존재하며, 따라서 두 종류의 창조신이 등장한다. 하나는 유리즌의 창조와 타락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의 창조와 타락이다. 텐바움은 유리즌과 로스의 서로 다른 창조 방식에 주목하여 블레이크가 18세기 독일의 학자인 아이혼의 연구를 참조하여 엘로힘을 따라 유리즌을, 여호와(Jehovah)를 따라 로스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창세기의 창조신은 1장에서는 엘로힘(Elohim)으로 2장에서는 야훼(Jahweh)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텐바움은 이 두 이름에 내포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Elohim is a generic name ("Judges"), whereas Jahweh is a proper name: the Elohim is a concept, and Jaweh is a person. The style of the Elohist creation is precise, repetitive, and largely abstract, and its austere description of the creation seems prosaic beside the Jahwist's string anthropomorphisms.¹⁵⁾

‘창조주로서의 엘로힘’은 추상적인 개념의 신인 반면 ‘창조주로서의 야훼’는 인간의 형태와 속성을 지닌 창조신이라는 이 두 구분으로부터 유리즌과 로스가 파생되었다는 지적은 유리즌과 로스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유리즌은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와 타락의 토대를 마련하고, 로스는 유리즌이 창조한 혼돈과 무형의 세계를 인간의 형태로 형상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이혼에 따르면, 창조에 대한 엘로힘의 스타일은 추상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자신의 이미지를 모방하여 인간을 형성하는 반면에 여호와의 스타일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어서, 그는 흙으로 인간을 형성한다.¹⁶⁾ 이처럼 텐바움은 “블레이크는 이러한 차이로부터 유리즌과 로스의 개념을 이끌어 내었으며, 유리즌은 추상화의 과정에 의해 천지창조와 원죄를 선도하고 있고, 로스는 그것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천지창조를 완결시킨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나 두 가지 창조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시대에 성장했던 예술가로서의 블레이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관례를 따르기도 하면서 그 관례를 수정한 『시의 소묘』(*Poetical Sketches*)에서의 초기시들은 예술적 창조에 대한 대조적인 두 가지 형식에 대한 그의 인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블레이크가 로스로 하여금 유리즌의 육체를 창조할 때 세계에 대

15) Tannebaum, *Biblical Tradition in Blake Early Prophecies*, p.203.

16) Tannebaum, "Blake Art of Crypsis", p.145.

17) Ibid., p.146.

한 엘로힘의 창조와 인간형상에 대한 여호와의 창조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혼의 연구가 블레이크가 자신만의 개념을 다듬을 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그러나 그의 개념이 그러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일 것이다. 만약 블레이크가 진정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이혼의 연구는 원천이 아니라 아마도 블레이크에게 세계의 창조에 대한 다양한 장면들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지도 모른다.

비록 블레이크의 두 창조주인 유리즌과 로스가 잘못을 범하여 참기 어려운 세계를 창조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정반대이다. 둘 다 고정화시킴으로써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유리즌의 서』의 끝에 가서는 둘 다 합리주의의 희생자가 되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즌이 영원을 그의 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모색하면서 “변화 없는 고정물”(4:11)같은 세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로스는 유리즌의 더 이상의 쇠퇴의 중단을 모색하면서 구원의 척도로서 유리즌의 세계를 형성한다. 노동을 하는 동안 로스는 그 기준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원에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지만, 반면에 유리즌은 로스의 이러한 기준을 지속성과 불변성이라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체하려 한다. 펀터(Punter)의 지적대로 영원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로스는 “개별적 존재에서 일반적 존재까지 구축해 가면서 자신의 법을 개별적 존재에 강요함으로써 구축한 유리즌의 건축학적인 방법론을 전도시킨다”.¹⁸⁾ 로스는 유리즌을 되살리는데 실패하고, “영원의 정신”인 유리즌 또는 이성으로부터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영존자들의 육체 속으로 그를 재통합한다. 유리즌의 완결된 형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로스는 물질세계를 기지의 것으로 수용하면서 영원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오르크가 출생하면서 영존자들은 로스의 세계 위로 과학의 천막을 단아버리자, “이제 로스는 더 이상 영원을 보지 못하게 된다”(20:2). 이처럼 영원의 비전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된 로스는 유리즌처럼 과학적 체계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며, “유리즌의 치명적인 그림자 아래서”(20:25) 타락하여, 오르크의 희생을 통해 상징화된 것처럼 삶을 구속하려 한다.

유리즌이 단일한 이성적 체계를 완성한 조물주라면 로스는 원래 그 체계의 탄생으로 인해 생겨난 분열을 회복시키려는 존재이다. 그는 대장장이의 도구로써 그 분열을 때우려 시도하지만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영원에 대한 기억은 그의 창조적 노동을 돕지 못한 채 그저 “우주적 공포에 압박을 받고” 있을 뿐이다.¹⁹⁾ 영원으로

18) Ibid., p.551.

부터 분리된 유리즌을 이전의 형태로 회복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유리즌의 창조를 완성시키는데 일조한다. 알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유리즌을 사슬로 묶는 그는 유리즌의 방식대로 “고리로 시간과 나날과 연수를 헤아려”(10:18) 현세의 시간개념을 생성시킨다. 이미 타락한 세계 속에서 영원의 예언가 로스도 “이신론적 시인이란 불행한 지위”²⁰⁾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로스에게는 이중적 역할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The Potential egotism and megalomania of the poetic, bardic role is continually tempted by Blake's portrait of the artist as Los, a self-portrait which sees the 'Eternal Prophet' not as a self-assumed cosmic spectator, but as a tormented figure, affected by internal divisions and fettered with a 'Chain of Jealousy'. Even Urizen is conceived to some extent as a self-portrait.²¹⁾

원래가 한 몸인 영존자들과 영원의 예언자인 로스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의 열한번째 판에서 세계를 활성화시켰다고 했던 것처럼 유리즌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유리즌 또는 “영원의 정신”이 영원에서 분리되면서 로스 또는 나머지 영존자들은, 즉각적인 효율적 방식을 통해 영원의 본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으며, 또한 부활을 위한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다.

유리즌을 세계와 인간의 육신 속으로 변용시키는 유리즌에 대한 로스의 창조를 묘사하면서 블레이크는 창세기와 『실락원』에 제시된 세계에 대한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Daniel)에 등장하는 느브갓네살(Nebuchadnezzar)의 타락까지 환기함으로써 성서와 밀튼의 비전들이 갖고 있는 반어적 의미를 보여주려 한다.²²⁾ 영원과 로스의 옆구리에서 분열돼 나온 유리즌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으로 변화한 것을 지켜보면서 로스는 자신의 상처가 낫게 되자 유리즌을 사슬에 묶음으로써 유리즌의 쇠퇴를 막으려고 시도한다. 성서에서의 천지창조가 7일이 걸린 것처럼 유리즌의 육체의 형성도 “일곱 시대(seven ages)”가 걸리며, 각 시대 끝의 후렴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의 하루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후렴을 패러디하고 있다. 블레이크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계의 형성은 유리즌을 되살리려는 손상된 영원

19) Martin K. Nurmi, *William Blake*(Kent: The Kent State Univ. Press, 1976), p.110.

20) Harold Bloom, *Blake Apocalypse: A Study in Poetic Argument*(Ithaca: Cornell Univ. Press, 1963), p.169.

21) Mitchell, *Blake Composite Art*, pp.112~113.

22) Ibid., p.155.

의 공허한 시도, 다시 말해서 “암울한 비탄의 상태”(13:19)로 끝나는 시도일 뿐이다. 블레이크는 이러한 비전들과 로스의 창조물을 겹쳐 놓음으로써 천지창조에 대한 성서적 비전이 생생한 세계와 인간의 신성한 형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이와 같이 로스의 작업에 의해 유리즌은 타락한 물질세계 속의 육체적 형상을 띠게 된다. 일곱번째 시대에 유리즌은 드디어 완전한 육신을 갖추게 되는데, 블레이크는 유리즌의 육체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환기시키고 있다.²³⁾

Enraged and stifled with torment,
He threw his right arm to the north,
His left arm to the south,
Shooting out in anguish deep:
And his feet stamped the nether abyss
In trembling and howling and dismay.
And a seventh age passed over,
And a state of dismal woe. (13:12~19)

천지창조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성스런 사건들을 융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자의 사건이 세계와 인간의 천지창조 속에서 그 원형을 발견하고 있으며, 천지창조는 신성을 절멸하는, 다시 말해서 불사를 숙명으로 구속한 것이라는 블레이크의 관점을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동시에 이러한 인유를 통해서 블레이크는 유리즌의 구속이 유리즌과 로스로 하여금 영존자들과 재결합하도록 하는 궁극적으로는 섭리의 사건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즌은 여전히 혼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그의 분노, 고통과 고뇌는 더욱 견고한 체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체로 『유리즌의 서』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유리즌의 창조 자체가 바로 자신과 현세의 타락이며, 그 파급 효과로 영원의 예언가여야 할 로스 또한 타락의 과정을 견고하다는 점이다.

23) Robert Simmons, "Urizen: The Symmetry of Fear", *Blake Visionary Forms Dramatic eds.* David V. Erdman & John E. Gra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0), p.155.

IV

『유리즌의 서』의 후반부는 유리즌과 로스의 타락 이후 더욱 가속화된 현세의 타락을 묘사한다. 여기에는 타락의 과정으로서의 인류의 탄생 및 그들의 분열²⁴⁾과 유리즌의 세계에서 첫 번째 반역이 포함되어 있다. 영원의 삶을 망각한 로스는 유리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사슬에 묶인 유리즌의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

Los wept, obscured with mourning;
His bosom earthquaked with sighs;
He saw Urizen, deadly black,
In his chains bound, and pity began,
In anguish dividing and dividing-
For pity divides the soul: (13:48~53)

유리즌을 변용시켜 영원의 예언자가 상상적으로 건설해 놓은 우주의 완전한 형상 속으로 그를 통합하는 대신에 로스는 주어진 것으로 수동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여 “끔찍한 기형의 형상”(13:43)에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블레이크에 있어 연민이란 바로 타락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칸토(P. A. Cantor)는 로스가 자기에게 속한 연민이란 약한 감정을 남의 것인 양 성의 역할 분화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민에 어울리는 여자라는 성이 창조된 것이라 하였지만,²⁵⁾ 이는 연민의 탄생 뒤에 오는 여성의 존재를 오히려 연민 앞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웹스터(B. Webster)의 경우는 연민이란 남자답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블레이크는 이를 혐오했었다고 하고 있으며,²⁶⁾ 블룸은 연민은 자기기만에 근거해 창조적인 일에 장애가 될 뿐인 감정이어서 블레이크에게는 악

24) Cantor는 “『유리즌의 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분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엘리엇(T. S. Eliot)의 ‘각수성의 분열’을 사용하는 것(the best way of describing what happens in *The Book of Urizen* is to use T. S. Eliot phrase, “dissociation of sensibility”)”이라고 하여 이 작품 속의 분열이 정신적 분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aul A. Cantor, *Creature and Creator: Myth-making and English Romanticism*[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1984], p.42).

25) *Ibid.*, pp.48~51.

26) Brenda S. Webster, *Blake Prophetic Psychology*(London:The Macmillan Press, 1983), p.164.

덕이었다고 말한다.²⁷⁾ 이것은 “『신성한 이미지』(A Divine Image)”나 “『인간의 추상』(Human Abstract)”에서 블레이크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민이란 타인의 불행에서 유래한다. 그 불행이란 바로 유리즌이 창조한 억압과 구속의 현세에서 생겨난 요소이다. 그것은 인류가 이미 분열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타락한 유리즌의 고통에서 타락한 로스가 연민을 느끼고, 다시 말해서 로스는 자신과 그의 인식의 대상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결과 남녀 양성인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또는 에니싸먼(Enitharmon)과 로스로 분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너미(Nurmi)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Pity in Blake almost always implies division, for to him it is the emotion that divides by separating him who pities from him who pitied. He saw with shrewd psychological insight that one who pities does not so much identify himself with the object of pity as congratulate himself on not being that object or associated with it. Pity is to him the false brotherhood of the professionally pious. . . . Since Urizen's world is a world of division, and since, indeed, his pious morality exalts pity, it is ironically appropriate that the animation which will ultimately fill his world with misery should come about by means of that emotion on a cosmic scale.²⁸⁾

블레이크는 창세기와 『실락원』에서의 이브(Eve)의 탄생을 환기함으로써 첫번째 여성의 형성을 묘사한다. 이브가 아담에서, 죄가 사탄에서 분리된 것처럼 에니싸먼 역시 로스와 분리된다. 로스가 에니싸먼의 형성을 “어두운 비전”(15:12)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아담 역시 이브의 형성을 비전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Paradise Lost* viii:460~2). 이처럼 이러한 인유를 에니싸먼의 출생 장면에도 겹쳐 넣음으로써 블레이크는 성서와 밀튼의 비전들이 남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비로운 창조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창세기와 밀튼이 여성의 형성을 신이 남자에게 내린 선물로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밀튼은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보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블레이크는 첫번째 여성의 탄생을 한 영존자의 한층 더한 분열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에니싸먼의 출생에 대해 영존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분명 이브의 탄생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죄의 탄생에 대해 반역 천사들이 보이는 반응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27) Bloom, *The Visionary Company*, p.77.

28) Nurmi, *William Blake*, pp.111~112.

다. 여지껏 유리즌과 로스의 타락을 근심스레 보아왔던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 등장함과 더불어 현세로부터 완전히 관계를 절연한다. 그들은 에니싸먼을 “연민(pity)”이라 이름짓고 그 모습이 영존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과학”이란 장막으로 둘러싼다. 과학이 한정된 물질세계의 법칙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면, 영존자들의 이런 행위는 물질세계를 과학적 법칙들 속에 가두어 뒀으로써 타락이 영원 세계에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유리즌의 세계를 완전하게 완성시켜준다.²⁹⁾ 이성적 체계로 구체된 유리즌의 세계와 억압적인 그의 종교체제를 베이컨(Bacon), 뉴턴(Newton), 로크(Locke)의 과학으로 합리화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시점을 달리해 현세 속에 남겨진 존재들의 입장에서 이 과학의 장막을 뛰어넘는 것이 영적인 지혜에 접하고 구원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일이다. 이 일은 현세 속에 남은 유리즌과 로스, 에니싸먼사이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 이 역학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르크의 탄생이다.

여성의 탄생과 같이 로스와 에니싸먼의 성적 결합에 의한 오르크의 탄생은 인간의 더한 분열을 나타낸다. 로스와 에니싸먼의 결합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인간은 그 자신의 분리된 이미지에 따라 그와 똑같은 존재를 낳게”(19:6~7)될 뿐이다. “인간의 환영의 탄생”(19:43)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 영존자들은 그들 자신을 로스, 에니싸먼, 오르크 그리고 유리즌과 분리시키기 위해 성이 분리될 때 그들이 건설해 놓은 과학의 천막을 단아 버린다. 이처럼 블레이크의 견해는 신이 인간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1:28)고 축복을 내렸다는 창세기의 견해와 신의 목소리가 이브에게 “너는 그것의 이미지, 그를 분리할 수 없는 네 것으로 향락하라, 그에게 너 닮은 무리를 낳아 주어, 그로 인해서 너는 인류의 어머니라 불리리라”(Paradise Lost IV:471~5) 가르쳤던 것에 대한 밀튼의 견해와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

원래 블레이크의 오르크는 주로 정치적, 도덕적 억압에 대한 저항정신이며, 혁명의 에너지 였으나, 로즈(Edward Rose)같은 비평가는 오르크를 예술가의 창조력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의 관계 속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즉 오르크를 자신이 대립하는 대상에 의해 왜곡된 예술정신이자 그 산물로 보고 그를 “자신의 야성적인 면과 사랑에 빠진 사이비 예언가의 관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³⁰⁾ 이는 곧 오르크가 좌절된 욕구, 오도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좌절된 창조정신의 상징”이라는

29) Bloom, *Blake Apocalypse*, p.171.

30) Edward J. Rose, “Good-Bye to Orc and All That”, *Blake Studies* 4:1(1972), p.135.

것이다.³¹⁾ 오르크와 유리즌은 모든 문화와 인간 속에 내재된,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의 대립항인 에너지와 이성, 저항과 억압, “넘침의 원리(The Prolific)”와 “삼킴의 원리(The Devouring)”을 대표하는 관점이지만, 로즈는 “오르크와 유리즌은 타락한 인간의 역설이자, 상상력이 결여된 욕망과 이성이다. 그들은 프로이트적 아들과 아버지이다”라는 매우 핵심적인 요약을 하고 있다.³²⁾ 따라서 오르크와 유리즌은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므로 이들만으로는 발전이나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쿠와셔(G. Quasha)의 지적대로 오르크라는 에너지의 원리는 진정한 ‘대립(Contrary)’이라 할 수 있는 로스의 예언적인 상상력의 원리와 “결합(married)” 되어야만 한다.³³⁾ 그러나 『유리즌의 서』에서는 오르크의 탄생이 “유사 외디푸적인 드라마(a pseudo-Oedipal drama)”라는 콕스(Cox)의 지적이나,³⁴⁾ 댐로슈(Damrosch)의 지적처럼 프로이트(Freud)의 “원초적 장면(primal scene)”이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다.³⁵⁾

에니싸먼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아들 오르크를 보고 아버지 로스는 엄청난 “질투의 사슬(Chain of Jealousy)”(20:8~17)에 얽매인다. 이는 유리즌의 세계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억압적인가를 드러내면서, 한편으로 로스도 이미 유리즌의 세계의 현상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연민이 현세의 분열을 가져왔다면 질투란 바로 분열의 또 다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They took Orc to the top of a mountain-
Oh, how Enitharmon wept!
They chained his young limbs to the rock
With the Chain of Jealousy
Beneath Urizen's deathful shadow. (20:21~5)

31) Ibid., p.147.

32) Ibid., pp.141~142.

33) George Quasha, “Orc as a Fiery Paradigm of Poetic Torsion”, *Blake Visionary Forms Dramatic*, ed. David V. Erdman(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70), p.267.

34) Cox, *Love and Logic*, p.155.

35) Leopold Damrosch Jr., *Symbol and Truth in Blake Myth*.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80, p.215. 한편, 블레이크의 시세계에 대해 정신 분석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웹스터는 오이디푸스적 욕구에 대한 사후적 억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Webster, *Blake Prophetic Psychology*, pp.165~166).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번제(燔祭)를 패러디하고 있는 이 장면은 유리즌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블레이크의 영존자들은 자연스런 재생산과 번성을 영원에서의 생산을 소름끼칠 정도로 전도시킨 예라고 저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이크가 오르크를 두고 “a man Child”-이사야서 (66:7)와 계시록(12:5)에 대한 인유-라 부르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계시를 가져올 동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블레이크에게 단순한 자연적 결합을 통해 인간은 영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크에 의해 상징되고 있는 자연스런 삶은 인간의 부활을 위해서는 원천인 셈이다.

그래서 『유리즌의 서』에서 가장 타락한 장면 속에 현세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유리즌의 세계의 첫 제물인 오르크의 희생은 바로 유리즌의 세계를 깨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The dead heard the voice of the child,
And began to awake from sleep.
All things heard the voice of the child,
And began to awake to life. (20:26~9)

이어지는 유리즌의 반응 역시 구약의 신을 패러디한다. 그는 바쳐진 제물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신성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세계를 더한 질곡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의 세계임을 보면서도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유한한 세계가 “황소가 도살장에서, 개가 겨울철 문 앞에서 신음하며”(25:1~2) “생명이 죽음 위에 살아가는”(23:27) 세계임을 보면서도 그것이 영원으로부터 이탈해 온 자신의 창조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을 타락한 인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He in darkness closed viewed all his race,
And his soul sickened. He cursed
Both sons and daughters; for he saw
That no flesh nor spirit could keep
His iron laws one moment. (23:22~6)

따라서 세계의 타락상을 보고 그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위선이 합해진 소산이다. 타락한 세상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그 세상을 저주하고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눈물을 연민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유리즌

의 연민은 현세 속의 존재들을 마지막으로 읊아낼 그물을 만들어 낸다. 블레이크는 이를 “종교의 그물(Net of Religion)”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것이 질투와 개인적 소유욕을 집약하고 있는 “여성 의지(Female Will)”의 씨앗이라 이야기한다(25:15~22).³⁶⁾ 만약 기존의 종교가 분열과 착취로 생겨난 불행을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하게만 하고, 그 불행의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민도 덕목이기보다 위선적인 자기기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남의 행복을 질시하는 질투와 개인적 소유욕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이 블레이크의 통찰인 것이다.

V

블레이크의 초기 작품들과 같이 『유리존의 서』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주체와 객체에 대한 블레이크의 동시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유리존의 서』속에 표현된 창조에 대한 모든 묘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반대되는 시각까지 제시한다. 이처럼 시간과 영원 속의 서로 다른 순간들, 서로 다른 공간들 그리고 원인과 결과, 또는 주체와 객체의 융합은 시간, 공간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블레이크의 상상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상상적 우주 속에다 예전의 예언자와 선배작가들의 비전들을 위치시키고,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 비전들을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케 함으로써 블레이크는 이 비전들의 진정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밝혀낸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존의 서』에서의 블레이크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융합과 그의 디자인과 텍스트에 대한 변증법적 제시, 그리고 다차원적이며, 이음매가 없는 내러티브구조와 의미의 다양한 시각과 차원을 통하여 블레이크는 독자들 마음속에 예언적 비전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블레이크는 원래의 문맥으로부터 어떤 요소를

36) 블레이크가 역사의 실패를 굳이 'Female Will'의 문제점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여성을 타락의 원천 및 원죄의 전달자로 보는 종교적 믿음, 당대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시나 사교 방식이 전적으로 반여성적이라고 보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이에 대해 폭스(Susan Fox)같은 비평가는 블레이크의 시에 있어서 여성의 존재가 어떤 실패의 은유이지 동의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Susan Fox, "The Female as Metaphor in William Blake Poetry", *Critical Inquiry* 3 [Spring 1977], pp.507~519).

옮겨와서는 그 요소를 다양한 문맥 속에다 위치시킨다. 그래서 각각의 문맥 속에서 똑같은 요소라 할지라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구조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변용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동하도록 독자들의 기능을 자극하기 위한(rouze [the reader’s] faculties to act)”(E 702) 시인의 전략이기도 하다. 『유리존의 서』를 읽다 보면 선입관이 배제되고 있으며, 정상적이면서 논리적인 정연한 사유방식이 우리들의 정상적 기대감을 무시하는 내러티브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텍스트는 우리들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보면 불일치하는 인유들을 겹쳐 넣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면과 외면, 원인과 결과의 혼란스런 융합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온갖 공간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오류의 형태를 인식하도록 자극한다. 이처럼 이 작품을 읽어 가면서 독자들은 그들의 평상적 사유방식이 아니라 예언자적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방식을 스스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유리존의 서』는 독자의 정신을 활성화시켜 보다 확대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유리존의 서』에 나타난 이러한 힘은 히브류 예언서들의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들과는 달리 블레이크의 예언은 그 축어적 의미를 구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유리존의 서』에서 단어들은 독자의 정신을 활성화하여 완성에 장애가 되는 오류들을 인식하도록 그들의 정신을 확장시키는데 활용된다. 이처럼 독자를 해방하기 위하여 블레이크의 이러한 예언의 힘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블레이크의 이사야와 에스겔이 설명한 대로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의 힘과 유사한 것이다.

결국 『유리존의 서』는 천지창조와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기존의 관점의 허위를 밝히고 록크의 인식론을 전도시키려 한다. 블레이크는 확일적인 메시지를 통한 성서와 밀튼의 양식이 아니라 히브류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들이면에 감추어진 동기와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예언 형식을 가지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유리존, 로스 그리고 영존자들의 오류와 고뇌를 통하여 블레이크는 그가 여태까지 탐색한 바 없는 예언적 삶의 한 부분, 즉 예언적 작업의 부담, 예언자가 지녀야 할 능력과 그가 개혁하고자 하는 세계로부터의 소외,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뇌 등을 제시한다. 비록 신성한 비전이 이 작품 속에서 충분히 개진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비전은 블레이크의 “상상적인 극적 형식(Visionary forms dramatic)”속에서 성서와 밀튼등의 선배 작가들의 비전과 독자들의 정신을 기존의 개념들과 전통적 사유 방식으로부터 구원함으로써 그리고 세계 속의 무한성에 대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인식 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예언자적 시인으로서의 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Works cited.

- Behrendt, Stephen C., *Reading William Blake*. New York:St. Martin's Press, 1992.
- Blake, William, *The Poems of William Blake:The Complete Poems*. ed. W. H. Stevenson. London:Longman, 1971.
- Bloom, Harold, *The Anxiety of Influence:A Theory of Poetry*. London:Oxford Univ. Press, 1973.
- _____, *Blake's Apocalypse:A Study in Poetic Argument*. Ithaca:Cornell Univ. Press, 1963.
- Damrosch, Leopold, Jr., *Symbol and Truth in Blake's Myth*.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80.
- Fox, Susan, "The Female as Metaphor in William Blake's Poetry." *Critical Inquiry*, 3:3(Spring 1977):507~519.
- Gleckner, Robert F., "Most Holy Forms of Thought:Some Observations on Blake and Language." *English Literary History* 41(1974):555~77.
- Hirsh, E. D. Jr., *Innocence and Experience:An Introduction to Blake*. Chicago: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 McGann, Jerome, "The Idea of an Indeterminate Text:Blake's Bible of Hell and Dr. Alexander Geddes." *Studies in Romanticism* 25(1986):303~24.
- Mitchell, W. J. T., *Blake's Composite Art:A Study of the Illuminated Poetry*.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78.
- Nurmi, Martin K., *William Blake*. Kent:The Kent State Univ. Press, 1976.
- Punter, David, "Blake:Creative and Uncreative Labour." *Studies in Romanticism* 16:4(Fall 1977):535~61.
- Rose, Edward J., "Good-bye to Orc and All That." *Blake Studies* 4(1972):135~51.
- Simmons, Robert, "Urizen:The Symmetry of Fear." *Blake's Visionary Forms Dramatic*. eds. David V. Erdman & John E. Grant.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70.

Tannenbaum, Leslie, *Biblical Tradition in Blake's Early Prophecies: The Great Code of Ar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2.

_____, "Blake's Art of Crypsis: *The Book of Urizen* and Genesis." *Blake Studies* 5:2(1972):141~69.

Webster, Brenda, *Blake's Prophetic Psychology*.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1983.

Abstract

Rereading the History: *The Book of Urizen*

Yoon-Deok Hur

Critics generally agree that William Blake belongs to a tradition of prophetic poets in English literature who conceive of themselves as heirs to the biblical prophets both politically and aesthetically. Recent criticism that examines him as prophet focuses on his use of the larger structures and devices of the Bible, especially those identified in biblical exegeses from the sixteenth through the eighteenth centuries.

In *The Book of Urizen* Blake attempts to debunk the established view of the Creation and man's place in the cosmos and subvert the Lockean epistemology; Blake tries to achieve his goal not by means of what he sees as the biblical and Miltonic mode of prophecy through monological messages, but by means of the heuristic mode of prophecy with the same motive as that behind the Hebrew prophets' symbolic acts as Blake conceives it. Through the errors and anguish of Urizen, Los, and the Eternals, Blake presents one area of the prophetic career he has not yet explored - the burden of the prophet's task, his alienation from both the power that appoints him and the world he strives to reform, and his anguish in failing to achieve his goal - the facet of the prophet's life best exemplified in the bible in Lamentation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the prophet Jeremiah.

Although the Divine Vision, or the living human form, is not fully developed in *The Book of Urizen*, it is implicit in Blake's "Visionary forms dramatic," by means of which Blake will deliver the predecessors' visions and the reader's mind from the confines of established conceptions and conventional modes of thinking and will awaken our dormant capacity for perception of the infinite in the world.